

끝나지 않은 세월호의 상처 철저한 조사만이 국가의 미래다

전문가칼럼

송영복
스페인어학 교수



세월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나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체 인양 과정을 생중계하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런데 역시나 참 말이 많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양극화를 부추긴다”, “좌파들의 이용물이다”라고 말이다. 세월호와 관련한 비판적 목소리의 끝판왕은 뭐니 뭐니 해도 “몇몇 위해 수천억 써야겠다”가 아닌가 싶다.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나아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끌고 가더니, 거기에 더하여 돈 이야기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을 자극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 보존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후속조치를 -비록 많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만 한다. 너무도 명백하고 충분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의의 문제이다.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 의하여, 혹은 사회의 구조화된 탐욕과 부패에 의해 배가 침몰했다.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300 여명의 사람들이 무능하고 의도적인 구조 실패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선체를 인양해서 보존하고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상식이요, 기본 -물론 작금의 나라꼴을 보자면 뭐가 상식이고 정의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다. 하여간 이번에 그나마 적당히 넘어간다면 다음에는 삼천 명, 아니 삼만 명이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사실 이제까지 잘못된 국가와 사회로 인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지만 조사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어디 한두 번



3월 23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사진제공 : 중앙일보)

이라. 그렇게 쌓이고 쌓여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3명 혹은 30명이 죽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300명에서 멈춰야하지 않겠는가. 철저히 조사해서 분명하게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더 많은 우리의 재산과 목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내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과 조사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고 한들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들은 그들 가족의 뼈 한 조각이라도 건져 물어주고 싶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차가운 바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것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오죽하겠나. 그나마 뺏조각 하나라도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그게 사람이다. 물론 어떻게 보면 부질없고 비경제적인 일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밥만 잘 먹고 최

고급 스마트폰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때로는 시한부로 울기도 웃기도 하고 미소 하나에 행복해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소위 인문적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더없이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이유다. 우리는 많은 돈이 들어도 어머니의 산소에 가고, 노래를 듣고, 데이트를 하며,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극히 비경제적인 활동을 한다. 그걸 비경제적이라 칭한다면 말이다.

그렇지만 불과 몇 안 되는 유가족들의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느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권력과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상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희생자들의 죽음을 내 가족의 죽음으로 느낀다. 세월호가 물속으로 곤두박질치던 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애절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물론 울린 머리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깟 일에 별 관심도 없었겠지만 말이다. 많이 울었다. 내가 아직 감성이 살아 있구나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자

꾸 그 객실 안에서 이리저리 탈출구를 찾는 상상을 하게 되고 온몸에 바닷물의 차가움이 느껴지는 듯 소름이 돋기도 했다. 생존 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으며 무의식중에 기도를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뉴스를 들었다. 혹시 무슨 소식이라도 없을까.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이 되었다. 많은 상처를 받았다. 스트레스성 장애에 걸린 것이다. 우리의 새끼와 친구들을 편안히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유가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알랑한 뺏조각 일지언정 그거라도 붙잡고 같이 한번 실컷 울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고통을 수습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한다. 세월호 인양과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극히 최소한의 값진 비용이다. 물론 그 비용도 아무리 많아봐야 탐관오리들의 금준미주(金樽美酒)나 옥반가효(玉盤佳肴)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되지 않겠지만 말이다.

참여마당

최병희
(식품생명공학 2013)



어제의 나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다

‘축하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8 평창 자원봉사자 면접심사를 통과하여 교육 대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받은 메일의 내용이다. 작년에 신청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면접심사를 통과했다는 내용이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처음 자원봉사를 신청할 때, 주변에선 많은 걱정을 했다. “4학년이면 남들 다 공부하고 있을 텐데 자원봉사를 할 시간이 있니?”, “너 말고도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뽑히기는 하겠니?” 같은 이야기들. 물론 나도 알고 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그러므로 여유 부릴 새도 없다는 것을.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내가 되자.’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기회를 포기한다면 나는 어제보다 나아질 것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지원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점을 나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실패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실패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두려움만 남을 뿐이다. 그래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당당히 합격했다. 사람들이 말했던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된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한 도전,
위기의 가면을 쓴 기회
보다 발전된 나를 만든다

기회는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찾아온다. 쉽고 편한 것에 안주하는 삶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지 그뿐이다. 나 역시 자원봉사를 위해 쏟은 많은 시간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 시간으로 인해 나는 분명히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직 모른다. 확실한 점은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반드시 후회했을 거라는 점이다. 만약 내가 이 기회를 포기하고 그 시간에 남들 따라서 공부했다면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더 넓은 세상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 ‘나보다 대단한’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의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다른 이들의 선택을 따라가는 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까? 내 삶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다. 그렇게 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어제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간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